

마음 다루기 빛이 온다

욕망 이면의 지고한 욕구

| 프라뵈 라인잔 사카르 | 오문환 옮김 |

모든 존재의 본성과 그것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마음은 언제나 움직인다. 마음은 정체될 수 없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을 심리성향(Vrtii)이라고 한다. 마음이 거친 것을 향하여 움직일 때, 뿌라브르띠(Pravrtii)라고 부르고, 세밀한 것을 향할 때 니브르띠(Nivrtii)라고 부른다. 거친 물질로 향한 심리성향을 정묘한 우주심으로 되돌리면 뿌라브르띠는 니브르띠로 바뀐다. 돈과 명예를 향한 마음을 인생의 목적인 지고의식에게로 되돌릴 수 있다. 뿌라브르띠의 흐름에 지배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질적 갈망을 억압하는 대신 지고의식에게로 되돌리면 물질적 욕망은 지고의식에 대한 헌신으로 바뀔 것이며, 평범한 인간이 위대한 영혼으로 될 것이다. 오늘 뿌라브르띠의 격랑은 내일 축복의 고요한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

마음은 계속하여 움직인다. 마지막 점, 궁극의 목적은 지고의식-영원한 사랑, 보편사랑-이다. 그대의 운동은 그분을 향한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거침에서 세밀함으로, 물질에서 지고의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정의의 길, 보편의 길로 행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득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보여주면서 말하라. “오 사람들이여, 그대들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였으니, 어서 오시오!” 인간의 몸과 마음을 타고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며, 여행의 종착지는 어느 날 지고의식을 찾는 것으로 끝난다. 지고의식, 우주의식이 목적일 때 그대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성공은 그대의 것이다.

이 행진에서의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사랑의 화신이며 인생의 궁극목적인 지고의식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분을 명상 대상으로 삼게 되면 분명 그분을 얻으리라. 우주목적, 즉 우주의 식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내적·외적 장애물에 대항하여 싸워

라. 외부로부터 그대를 속박하는 굴레는 빠샤(Pashas)¹⁾라고 한다. 증오, 공포, 수줍음 등과 같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그대에게 가르쳐 준 굴레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대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굴레에 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밖으로부터 가해진 업보가 아니라 타고난 내면의 적에는 여섯 개의 사드리뿌(Sadripu)²⁾가 있다. 여덟 개의 외적인 적과 여섯 개의 내면의 적과 싸워야 한다. 왼손과 오른손으로 싸우면서 계급과 신앙과 민족성에 관계없이 네오휴머니즘의 정신으로 전 우주에 봉사해야 한다. “우주는 나의 것, 모든 생명체도 나의 것, 나는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존재한다.” “내가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이 한 손으로는 내적·외적 적과 투쟁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 우주에 봉사한다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대에게는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대의 존재는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달마의 길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의 갈증을

1) 여덟 개의 외적 굴레들(Asta'pa'sha)

라자(lajja':부끄러움), 바야(bhaya:공포심), 샤웅까(shaunka':의심), 기르나(ghr'n'a':증오), 쿨라(kula:교만), 실라(shiila':문화적 자만감), 마나(ma'na:에고), 주굽사(jugupsa':위선과 독설)

2) 여섯 개의 내적 굴레들(Sadripu)

카마(ka'ma:신체적 욕망), 크로다(krodha:분노, 성냄), 로바(lobha:탐욕), 모하(moha:집착), 마다(mada:자만), 맛사리아(ma'tsarya:선망:羨望)

채울 수 없다. 재산과 명망, 이름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한을 얻을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주 자체가 유한한데 우주 안의 대상이 어떻게 무한할 수 있겠는가? 또한 무한한 물질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성취는—설사 그것이 전 우주라고 해도—무한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무한은 무엇인가? 오직 지고존재(Parama Purusa),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뿐이다. 이 지고존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야말로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사실상 세속적 쾌락에 대한 끝없는 욕망의 이면에는 지고존재에 대한 욕구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브라마(Brahmā : 조물주)의 성취야말로 인간의 달마(Dharma),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달마의 문자상의 의미는 한 대상의 천성적 특성, 본성, 또는 속성이다. 불의 본성은 타오르는 것이다. 불과 그 본성을 갈라놓을 수 없듯이 인간과 인간의 본성도—브라마를 향한 갈구—하나이며 갈라놓을 수 없다.

달마는 종교가 아니다. 달마는 존재의 정수를 의미한다. 인간의 몸을 타고났으므로 성장하고,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영광스럽게 죽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달마이다. 단지 종족보존과 생식의 본능에 이끌려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인간본성(ma'nava dharma)에는 세 가지 요소와 이 요소들의 결과인 나머지 하나를 더한 네 가지가 있다. (1)비스따라(vista'ra): 확장의 원리, (2)라사(rasa): 지고의식에 대한 완전한 귀의, (3)세바(seva): 지고의식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비이기적인 봉사, (4)탓스띠티(tadsthiti): 지고의식과 하나됨.

인간은 확장을 원하나, 남의 재산을 빼앗아 마음을 확장시킬 수는

없다. 인간가치와 실존적 의식을 완전히 우주 흐름에 맡겨서 전 우주로 팽창시킬 때만 가능하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달콤한 느낌을 모든 존재의 마음과 일치시킬 때 가능하다.

라사는 영원한 행복의 몰입을 의미한다. 달콤한 신선함으로 인간존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는 자신이 태어난 지고 존재와 부단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의 세계는 주고받음의 세계이다.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는 진보하거나 퇴보하지 않는다. 받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은 타락하고, 주는 것만 생각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스스로 지고존재의 도구로 생각하여 지고존재가 바라는 일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일을 한다. 이것이 세바의 정신이다.

그리하여 비스타라, 라사, 세바는 사다나의 범주에 들며, 사다나의 목적은 이 세 가지 요소의 결과인 팻스띠티(tadsthiti)이다.

마나바 달마(ma'nava dharma)는 이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이다. 이 달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벗이다. 이 달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달마를 위한 희생만큼 값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달마를 성스러운 달마(Bha'gavat Dharma)라고 부른다.

사회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서 물구나무 자세로 참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지고의식께서 동굴을 막은 무거운 돌문을 열어젖히고 앞에 서서 “내 아들이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큰곰자리를 이루는 하나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의 희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랫동안 동굴 속에서 한 참회가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이는 바가

뱃 달마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속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바가뱃 달마를 충실히 따르고, 또한 고통 받는 피조물에게 봉사해야 한다. 출가인은 가정생활을 떠나서 바가뱃 달마를 따르며 고통 받는 인류에게 평화와 진보라는 치유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달마의 길이다. 이것이 지고의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다.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구도자는 세속생활에 대한 생각과 기억으로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히말라야에 앉아 있으면서 우유로 만든 켈 커타산 사탕을 생각할 것이다. 진심으로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수행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기쁨과 슬픔으로 이루어진 루비와 에메랄드처럼 빛난다.

영적인 지식만으로 자아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아실현에만 열중하므로 이기심의 벌레가 마음 깊이 숨어들어가 섬세한 감수성과 모든 팽창된 마음을 좀먹기 때문에 후회와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깨달음만을 얻으려는 노력은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없다.

세계의 행복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같은 너른 마음과 푸른 창공과도 같은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기적인 욕망이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우주에도 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 쉬바께서 자아실현과 인류 봉사 (Atmamoksa'rtham Jagatthitaya ca)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마가 인생의 주된 흐름이라는 사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 진리다. 달마는 생명체의 원동력이며, 부의 원천이며, 인생여로의 안내자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는 각각의 달마를 지니고 있다. 이 달마는 사물의 존재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달마는 무생명체에서는 덜 나타나 있고, 생명체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 있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의 경우 달마는 본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달마는 그 이상이다. 인간의 달마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스며들고 침투한다.

그러므로 달마의 영역에 있어서 유일한 안내자, 통제자, 원동력, 또는 보호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개인생활에서 시작하여 사회활동과 집단생활 그리고 신에게로 나아가는 영적인 생활에서—분명하고, 선명하고, 과감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하고 총체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경전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또한 달마의 영역에는 경전의 형태로 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존 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내하는 엄격한 안내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 안내자들이 죽은 뒤에도 그들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특정한 시대에 가르침을 베풀었으나 영원한 행위지침이 될 것이다.

(끝) 

- 이 글은 『빛이 온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라뻏 라인잔 사카르**(P. R. Sarkar, 슈리슈리 아난다 무르띠) | 1921년 인도의 비하르(Bihar) 지방에서 태어난 프라뻏 라인잔 사카르(Prabhat Rainjan Sarkar)는 어렸을 때부터 한없는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깨달음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또한 고대 탄트

라 요가 과학을 현대에 알맞게 적용시키면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영의 철학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전을 위한 일련의 수행체계를 발전시켰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산스크리트어로 '행복의 화신으로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슈리 슈리 아난다무르띠(Shrii Shrii Anandamurti)'라고 부른다.

아난다 무르띠는 1921년 인도 벵갈에서 태어났다. 1955년 1월 9일 자아실현과 인류봉사의 두 이념을 목적으로 하는 '아난다 마르가'를 창설하였으며, 1959년 사회 경제철학인 프라우트를 창설하였다. 이분의 명상수행법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1990년 10월 21일 대열반에 들었다.

아난다무르띠는 인간의 몸, 마음, 영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으며, 깨달음의 영원한 행복을 우주만물과 더불어 나눌 것을 가르쳤다.

역자 | **오문환** |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86년 아난다 마르가에 입문했다.

* 한국 아난다 마르가 모임 본부 - 전북 전주 063-261-7178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빛이 온다

저자 P. R. 사카르 | 역자 오문환 | 출판사 아난다 마르가 |

정가 12,000원



『빛이 온다』의 내용은 프라팻 라인잔 사카르(아난다무르띠)께서 여러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 편찬한 수 종류의 책 중에서, 제자인 아난다미트라가 다시 주제별로 분류/편집한 책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Light Comes와 The Thought of P.R. Sarkar』였으며, 1986년 아난다마르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명상 관련 서적들이 나왔으나 대부분이 한결 같이 풍성한 말잔치는 될지언정 실질적인 수행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영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아난다무르띠의 간결하고도 명료한 말씀은 수행의 빛이며 안내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극한 영적 즐거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크나큰 보람이 될 것이다.